

새 우리 품종 인지도 높인다

농진청, 현대백화점과 '유통 활성화' 협약

애플멜론·청산 등 12월까지 순차 입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새로 육성한 우리 품종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 현대백화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농촌진흥청과 도(道) 농업기술원 등이 각각 연구·개발, 보급에 활발하게 생산 중인 과일·채소 등 국내 육성품종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경쟁력 있는 우수 품종을 선정해 수확 및 출하시기에 맞춰 전국 16개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기획 판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상추 품종 '흑하랑'과 양파 품종 '스리랑 양파'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현대백화점에서 판매된 바 있다. 앞으로 '애플멜론', 옥수수 '황금맛찰', '고당옥', 토종대래 '청산', 고구마 '소담미' 품종 등이 오는 12월 까지 순차적으로 입점할 예정이다.

향후 두 기관은 국내 육성 품종 또

는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재배, 유통, 판매, 홍보 등에 관한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관계망(네트워크)과 지식을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현대백화점은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해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이철원 국장은 "최근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품종과 희소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맞춰 우리 품종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아주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식품사업부 신현구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대추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협은 지난 18일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협무역과 함께 전주농협 농산물 신지유통센터에서 임인규 조합장과 강신욱 안파공선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양파 24톤의 대만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전주 햇양파, 대만 수출길 올랐다

전주농협, 매주 24톤씩 240톤 수출키로

전주농협은 지난 18일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협무역과 함께 전주농협 농산물 신지유통센터에서 임인규 조합장과 강신욱 안파공선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양파 24톤의 대만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전주농협은 이번 첫 선적을 시작으로 매주 24톤씩 240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240톤은 전주지역 전체 생산량인 1,000톤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수출액은 1945,000원 정도다. 전체생산량 중 나머지 760톤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와 도매시장을

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에 관련 전주시와 전주농협은 지난 2014년부터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안파공선회장을 조직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2018년 완공된 농산물신지유통센터(AFC)를 거점으로 안파수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은 "전주의 고품질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농가의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특화산업육성+R&D 공모 선정

바이오진흥원, 2년동안 국비 6억원 확보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김동수)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R&D'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 도내 식품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의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을 제고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주)인펀드, 전주대 학교와 함께 발효대사물과 천연추출물 유래 성분을 활용해 향미와 물질을

개선하고 근력강화에 도움을 주는 수비드 닭가슴살 간편편의(HMR유형)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이 사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수 원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미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친화식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제품개발·지체생산·마케팅/영업·판매가 가능한 원스톱(One stop) 시스템과 탁월한 기술력, 제품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섭취능력과 니즈(Needs)를 반영한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중앙회는 지난 18일 고산농협과 함께 완주군 고산면 양파밭에서 정철훈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정재호 전북농협본부장, 지자체·농협 관계자, 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농업 기계화 농작업대행 시연회'를 가졌다.

기계화 농작업대행으로 발농업 일손 해결

농협중앙회, 고산 양파밭에서 수확작업 전 과정 기계화 시연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지난 18일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과 함께 완주군 고산면 양파밭에서 정철훈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정재호 전북농협본부장, 지자체·농협 관계자, 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농업 기계화 농작업대행 시연회를 가졌다.

현재 우리농촌은 인구감소 및 고령·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발농업 기계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수입 농산물 확대와 국내 농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발농업의 경우 2020년 기준 74만ha 경지에서 채소·콩 등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발농업 기계화율(2020년)은 평균 61.9%에 불과하며, 그 중 파종·정식과 수확은 각각 12.2%, 31.6%로 비율이 낮아 대부분의 노동력을 농업인의 일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농업 기계화를 높이기 위해 발작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계화작업 품종개발과 재배양식 표준화 등 기술개발 및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협도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8년

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도입해 농작업대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정부의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참여해 발농업 기계화를 제고를 위해 농작업대행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등 스마트농기계를 지원해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 농작업에 이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정철훈 대표이사는 "발농업 농작업대행 활성화는 농업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된다"며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ESG 경영으로 혁신을 꿈꾸다

한전 전북본부 전문위원회 발족

한국전력 전북본부(본부장 이경섭)는 지난 15일 ESG 경영혁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기업평가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따라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ESG 경영혁신 전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현안과 사업들을 ESG관점에서 재편했다.

5명의 외부전문가와 한국전력 전북본부장으로 구성된 ESG 경영혁신 전문위원회는 전북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현안에 대해 제3자의 관점에서 자문을 하게 된다. 특히 외부전문가는 환경운동가와 언론계, 학계 등으로 구성돼 있어, 다방면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섭 한국전력 전북본부장은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들의 도움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ESG관점에서 살펴보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전전력 전북본부 ESG 경영혁신전문위원회

전북경제 성장 이끈 주역들에게 큰 상을

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 수상자 7명에 인증현판 수여

전북도가 전북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도내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발했다.

도는 전북도청에서 제19회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수상자 7명에게 공로패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고용창출 분야 '신우산업(주)' 대표 하경숙 ▲매출신장 분야 '(주)에스엔피' 대표 이종태 ▲지역발전공헌 분야 '집바다' 영예조합법인 대표 김중화 ▲우수신제품개발 분야 주식회사 이인 ▲대표 성장류 ▲장수기업 분야 '(주)이성상' 대표 김현주 ▲창업기업 분야 '(주)안예코' 대표 신재무 ▲경제단체 분야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 두안정 이사장 등이 있다.

이번 제19회 우수중소기업인상에는 총 46개 기업 대표자가 신청하며, 약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파급효과, 대표자 경영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발표평



전북도는 도청에서 제19회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수상자 7명에게 공로패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가를 거쳐, 분야별 최고 득표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7명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되고, 기업에는 인증현판과 3천만원의 경영개선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등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에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각종 금융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송해진 전북도지사는 "우수한 기

술력과 성실함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기업인이야말로 전북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은 지난 2008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18회까지 총 9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택(김제시, 부안군)을 초청해 참여우 명품프리미엄에서 전북지역 축협 조합장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정재호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착금지법의 농축산물 선물가액 할도상향 및 정례화 ▲농축산업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 ▲공익직불제 대상에 축산농가 포함 ▲지역축협 설립인가 기준 현실화 ▲축협 복수조합원 제도 도입 ▲RPC 부산물 왕겨·미강 이용



지난 18일 참여우 명품프리미엄에서 열린 이원택 국회의원의 정책간담회.

절차 간소화 ▲낙농 가공원료류 지원사업 지원금 확대 등 7가지 정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업에

대한 적극적인 법안 발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농·축산인들의 대변자가 되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공사 공간정보아카데미 훈련센터 평가 '트리플 A'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경철·LX공사)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 윤동호)가 정부로부터 훈련센터 평가 트리플 A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LX공사는 지난 18일 열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전시회에서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최우수 훈련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국가전략 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지난 2014년 공간정보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공동훈련센터로, 전략분야 과정설계 및 개발 만족도 과정평가 활용도와 채용예정자 고용유지율 등 5개 분야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는 아카데미가 공간정보 관련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은 후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고, 협약 기업에는 맞춤형 인력을 지원해 온 결과다.

특히 지난해 채용예정자 교육과정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분야 인재를 양성해 100% 취업률을 달성하는 한편, 재직자 향상과정을 통해 매년 500명 이상의 직무역량을 강화해왔다.

윤동호 국토정보교육원장은 "공간정보산업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산업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공간정보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직무역량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